

충청남도-중국 협력 확대 방안 연구

곽덕환 | 한남대학교 교수

1. 서론

한국이 근·현대화 이후 반세기 넘게 주로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성장, 발전해 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접어들어 그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의 성공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영향은 전 세계적이며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해졌다. 2005년 현재 한국의 대외교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하게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제 1교역국이 되었다.¹⁾

특히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협정이 발효될 시 그 여파는 한·미 FTA 영향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충청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 확대는 매우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향후 중국의 부상이 향후 충청남

도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인식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이제까지 전개된 충남지역의 중국 교류 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양국간 협력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보며 21세기 충청남도 도약 전략을 재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2. 중국 협력 현황 및 문제점

충청남도의 중국과의 교류는 공식적으로 1994년 허베이성(河北省)과의 교류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후 이루어진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넓지 못하고 심도 또한 그리 깊지 않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상 부문도 대 중국 수출입

1) 최원기, 「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미래전략 연구원 특별기고, 2006.

〈표 1〉 교류 지방정부 현황

구분	자치단체명	체결일자
자매결연 (1개단체)	중국 허베이성	1994. 10. 19
우호협력 (4개단체)	중국 산둥성	1995. 10. 31
	중국옌벤 조선족자치주	2002. 04. 16
	중국 지린성	2005. 09. 26
	중국 장쑤성	2005. 09. 27

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또 다시 비약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 중국 교류 및 통상현황

우선 현시점을 기준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상황은 아래와 같다.

교류형태 구분을 살펴보면 자매결연은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우호적인 제휴를 맺는 것으로 공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서가 교환되어 국가 간 국교 수립과 마찬가지로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이 양 도시 시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단계로서 상호교류를 하기 위한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교류협력 의향서를 통해 공식적 관계가 시작된다.”

현재까지 해외단체 교류 현황은 아래 표와

〈표 2〉 '07년도 교류 현황

(’07. 4. 30 기준)

구분	단체별	계		도 → 중국		중국 → 도		비 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11	77	6	37	5	40	
자매결연	허베이(河北)성	5	28	3	18	2	10	
우호협력	옌벤(延邊) 조선족자치주	3	30	0	0	3	30	
	산둥(山東)성	0	0	0	0	0	0	
	지린(吉林)성	0	0	0	0	0	0	
	장쑤(江蘇)성	3	19	3	19	0	0	

2) 행정자치부 훈령 제1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표 3〉 최근 중국 교류 현황

(’07. 4. 30 기준)

구분	단체별	계		도 → 중국		중국 → 도		교류 기간	연평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177	1,972	68	686	109	1,286	34	5	58
자매결연	허베이(河北)성	82	796	35	353	46	442	13	6	61
우호 협력	옌뎨(延邊) 조선족자치주	42	749	10	139	32	610	5	8	150
	산둥(山東)성	27	259	10	111	17	148	12	2	22
	지린(吉林)성	8	65	3	31	5	34	2	4	33
	장쑤(江蘇)성	18	103	10	52	9	52	2	10	52

〈표 4〉 분야별 중국 교류 현황

(’07. 4. 30 기준, 단위 : 건/명)

구분	단체별	계	일반 (주요인사)	행정 시책	경제 통상	농림 수산 환경	문화 관광 체육	공무원 연 수	청소년 기 타
합계	-	177	70	14	37	11	21	12	12
		1972	644	69	655	64	390	13	137
자매결연	허베이(河北)성	82	24	10	16	6	12	9	5
		796	271	48	161	30	210	10	66
우호 협력	옌뎨(延) 조선족자치주	42	25	0	10	0	3	2	2
	749	244	0	390	0	76	2	37	
	산둥(山東)성	27	8	0	9	0	5	0	5
	259	40	0	83	0	102	0	34	
지린(吉林)성	8	6	0	2	0	0	0	0	
	65	44	0	21	0	0	0	0	
장쑤(江蘇)성	18	7	4	0	5	1	1	0	
	103	45	21	0	34	2	1	0	

같다.

최근 중국과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하북 성과는 충청남도측 주요 인사 중국 방문이

있었고 중국측에서는 충청권 중소기업 제품 판매 기획전 참가하였고, 체육·청소년 교류 방면에는 도내 중학생들의 현지 문화 체험이

있었으며, 체육회 다이빙 연수단 일행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추가로 산동성과 연변자치주와도 인적 교류 및 충청권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 참가하였고, 길림성에서는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 참가하였다. 강소성과는 인사 교류 방면에서 우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충남도 공무원이 강소성을 방문하였고, 도지사 10명의 방문단이 2006년 9월에 남경시를 방문하여 강소성 성장(省長)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양 단체가 교류 협력 강화를 다졌다.³⁾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측 지방정부 차원의 주요인사와 경제통상 교류는 다소 활발한 편이나 문화 관광체육, 청소년 등의 교류는 미흡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 지역도 광범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안변의 대도시와의 교류가 전무하고 이미 교류하고 있는 지역도 허베이성과 옌벤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충청남도 통상현황에 대한 자료로써, 여기에서 보면 2003년부터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에서 대중국에 대한 투자 역시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가 기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보다 현격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지역의 제조업 현황은 업체수 면에서 금속기계, 플라스틱 비금속, 음식료품이 다수인 편이고 종업원 수로는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에도 많은 편인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첨부1:

〈표 5〉 충청남도 對중화권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

구분	'03		'04		'05		'06		'07. 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합 계	7,789	1,436	11,7535	1,763	15,003	2,942	17,167	3,777	4,920	1,137
중 국	3,848	1,111	5,805	1,227	8,277	2,006	9,702	2,661	3,424	804
홍 콩	2,054	54	3,653	64	4,303	133	4,755	188	794	37
대 만	1,887	271	2,295	472	2,423	803	2,710	928	702	296
무역수지	6,353		9,990		12,061		13,390		3,783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충청남도, 「2006년 도정백서」, 참조

〈표 6〉 충청남도 對중화권 투자 진출 현황

(단위:업체 수)

구분	누 계	제조업	숙 박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광 업	농 립 어 업	운수 창고업
계	483	406	14	18	20	7	5	11	2
중 국	466	396	14	16	15	7	5	11	2
홍 콩	11	7	-	1	3	-	-	-	-
대 만	6	3	-	1	2	-	-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6. 12. 31. 기준)

2006년 제조업체 현황)

기업 유치 상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당진군
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내 기업은 천안시에 외

지 기업은 당진군이나 아산시에 다수 분포되
어 있다.

〈표 7〉 2005년 기업유치 현황

(2005. 1. 1~2005. 12. 31까지)

시·군	유치업체수(개)			부지면적 (㎡)	고용인원 (명)
	계	도내기업인	외지기업인		
계	548	273	275	6,432,960	21,567
천안시	122	75	47	2,316,703	10,952
공주시	34	30	4	217,042	510
보령시	23	14	9	72,442	267
아산시	69	33	36	903,660	2,124
서산시	26	14	12	649,206	1,204
논산시	45	25	20	243,980	493
금산군	27	8	19	170,415	339
연기군	21	11	10	100,556	295
부여군	12	6	6	92,637	441
서천군	7	2	5	33,330	102
청양군	5	3	2	28,561	56
홍성군	16	9	7	113,943	427
예산군	26	22	4	158,554	436
태안군	8	7	1	64,948	111
당진군	107	14	93	1,266,983	3,810

2) 취약과 편중

먼저 충청남도의 중국 교류 실태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상(3점), 중(2점), 하(1점)로 설문조사했을 때, 영어 1.5, 중국어 1.44, 일본어 1.33으로 조사되어 언어소통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또한, 국제 통상 관련 예산은 총 예산의 0.15%에 불과하여 이 수준은 국제 통상 예산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기도 0.78%, 경남 0.31%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류 면에서 여전히 관방적인 교류 방문에 의존해 있고 교류 지역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빈도와 심도 역시 낮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수가 가장 많은 청도 지역에서는 아직 무역관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고 절강성(浙江省)이나 안휘성(安徽省), 북경, 천진, 광주 지역 등과의 교류는 아직 한 번도 시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 공무원 방면에서도 여전히 순환보직을 중시하는 관계로 중국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지식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중국 관련 지식이나 어학 실력이 높지 않고 중국 인사들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 그리 긴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

나아가 관방과 민간, 학계와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방면에서 체계적인 협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제까지 중국과의 교류는 우발적이거나 일과성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가 최초로 교류를 시작한 허베이성은 충남 지역과 특별한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은 지역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국내 기존 교류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중국 유력인사들과의 장기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유지가 힘들 뿐만 아니라, 현지의 재외공관, 교민회, 상회 등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가 쉽지 않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내 민간부문과의 연계나 대학, 초·중·고등학교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 계획이 수립, 집행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3. 중국의 부상과 충남의 기회

중국을 이미 전 세계의 공장지로 변모되었으며 이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여 단순

4)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국제교류활성화방안연구」, 2007. p. 41

히 상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지역에서 타국이 매력을 느끼는 투자시장과 떠오르는 새로운 수출 대상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은 충남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 후 가까운 시일 내 체결이 예상되는 한중 FTA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충청남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과 기회를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1) 세계 공장과 신시장

2001년 중국이 WTO(世界貿易機構)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연 평균 30%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2005년 외자유입이 55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6년 가공무역 수출이 8,319억 달러에 달했고, 수출상품 5,000종 중에서 2,000종 상품이 세계 5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770종 상품이 세계 1위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조업규모는 제3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입은 연간 5,000억 달러에 달해서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여 타국의 취업기회 창조는 약 1,000만개에 이르고 있다.⁵⁾

최근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주제가 자주 논의되는 화제 거리가 되었다. 중국 정법(政法)대학 양판(楊帆)교수는 최근 중국의 부상은 1840년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인민들이 노력 결과인데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전쟁의 승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편전쟁 이래 거듭된 패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둘째는 공업화의 성공이라 말하고 있는데 지구상의 모든 국가 농업사회에서 공업화 단계로 발전하였는데 중국 역시 근대화 이래 애써온 공업화의 노력이 성공을 거둔 결과라고 보고 있다. 셋째는 중국의 인구 성장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청(淸) 말에 4억 5천만 정도의 인구가 2019년경까지는 16억 5천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방대한 인구 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인민폐의 환율가치 상승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예측하기를 현재 1달러(8.27원)의 환율이 부단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계속적 경제 상승이 2019년 까지 연간 10%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GDP

5) 陳震修, 「中國入世 5周年紀念」, 中國航運, 2007. 第1期, <http://www.qikan.com>

도 역시 매년 40%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다.⁶⁾

중국의 작년 GDP 규모가 구매력 평가로 볼 때 7조 1,237억 달러로 미국의 11조 6,281억 달러에 이어 제2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 구매력 평가 기준은 2017년쯤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⁷⁾ 이렇게 살펴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판매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⁸⁾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미국 경제잡지 '포춘(fortune)' 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480개 이상으로, 그들이 유망하게 보는 업종으로는 환경 보호 산업, 화공, IT, 문화산업, 서비스업 등이다.⁹⁾ 또한, 그들의 진출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현지의 강자와 손잡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2) 한중 FTA와 충남의 번영

1992년 8월 국교수립 이후 지속적 성장세를 보인 한중간 무역액은 1992년 63.17억 달러에

서 2005년 1,005.8억 달러로 13년간 15.8배 증가하였다. 2004년 이후 중국이 미국,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한중간 교역액은 1,343억 달러에 달했고, 2010년에는 2,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제2의 수입국이다.¹⁰⁾

중국이 비준한 한국기업의 대중 직접투자는 39억\$에 달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중 직접투자액은 348.9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 국가발전 계획 위원회 대외 경제 연구소장인 장옌성(張燕生)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산업간 분업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경제 무역 협력 면에서 IT, 바이오테크, 신소재, 자동차, 강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유통, 물류협력, 전통의약, 전염병 예방,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시화 발전에 협력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도시화 방면에서 향후 30~35년간 중국

6) 楊帆, 『透析中國經濟走勢』, 世紀大講堂, 2007.5.19 <http://www.phoenixtv.com>

7) <http://www.chosun.com> 2005.12.15

8) 2039년쯤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스위스 경제학자가 예측하고 있다. 21世紀經濟報道, 『中國世紀』, 華夏出版社, 2004, p.220

9) 중앙일보, 2007.5.19

10) 국정브리핑, 2007. 4. 23. <http://www.news.naver.com> 2007.4.23 참고

도시와 비율이 60~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 인구는 7.8억 명에서 9.1억 명에 이르고, 농촌 인구는 5.2억 명에서 3.9억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¹¹⁾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사회학자 판웨이(潘維)는 향후 30년 동안 중국 15억 인구 중 5억은 새로 건설한 대도시에 거주하게 하고, 5억은 기존 대도시에 거주케 하며 4억은 중소도시에 나머지 1억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¹²⁾

둘째, 신 농촌 건설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농촌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가스, 바이오 디젤, 수력, 태양열, 풍력에너지 등의 개발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국이 함께 이러한 건설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의 국제화 분야에 대한 협력이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3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에 넘쳐나는 외화로 해외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상 살펴 본 것은 향후 중국의 변화와 그 속에서 우리 한국과 충남의 협력 가능성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현실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의 한중간 교역 상황에 대해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역 형태를 대략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에 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있고 수입은 주로 기초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단체별 대중국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경기, 서울이 각각 21.3%,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4.7%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64.5%를 차지하며 대중국 교역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첨부 2 : 10대 대중수출 품목)

2005년 지방자치단체별 대중국 교역은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2006년 상반기는 교역증가율이 대부분 둔화되었으나, 충남지역은 12.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역 중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 고유가, 원화강세, IT 경기 외 경기둔화 등 불리한 대내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9.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충남지역도 42.6%의 성장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수출의존도가 높고, 또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4.7%로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액으로는 2005년 82.8억 달러, 2006년에는 97억 달러를 기록하고

11) 潘維, 『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理論與實踐』, (北京: 經濟出版社, 2006), p.35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협소한 내수시장 환경요인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해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중국시장은 새로운 원동력이고 경제발전의 발판이다.

2005년 우리나라 대중국 수입 동향을 살펴 보면 수입부문 역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역수입 및 수출호황에 따른 기초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30.6% 증가한 386.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충남지역 역시 46.7%를 기록하였다.¹²⁾ (첨부3 : 10대 대중국 수입 품목)

그러나, 향후 중국기술력 향상과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로 인해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대중국 교역에서 지리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진 서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충남, 인천, 전북, 전남지역은 중국의 발달한 동부 연안 대도시와의 협력·경제통합을 통해 한중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국 교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

충남지역이 대중국 지역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향후 발전 방향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의 도시화, 신 농촌 건설 분야의 사회간접

자본 방면, 국제화 방면 특히, 첨단과학기술,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분야 등에 대해 충남지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충청남도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유력한 협력 상대자를 선택하여 함께 시장 개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충남지역에서 중국 현지에 개설한 무역관이 상해 한 곳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보다 더 많은 무역관 개설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북경, 청도, 광주와 각 성(省)의 도읍지에 하나씩 추가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참고로 상해 무역관에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진 기지로 정착 운영하여 도내 기업 제품 홍보, 수출알선 및 중국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발굴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무역관 개소 6년차로 2005년도에는 수출목표 114.4%(14,479만불)를 달성하였다. (첨부4 : 무역관 현황 및 활동)

투자 유입에 있어 내부적으로 충남지역이 향후 있을지도 모를 중국의 대 충남지역 투자에 지장이 없게 스스로의 법규 개선이나 관련 인사들의 중국어 실력 향상과 투자 대상지역에

12) 이봉길, 「2006년 지방자치단체별 대중국 교역 현황과 특징」, 중국경제기초정보시리즈, 제 2006-9호 참고

대한 홍보와 연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충남지역의 항만 설비, 도로시설 등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구축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중기업 공동으로 협력하여 충남 지역에 기업이나 공장을 건립하여 타국으로의 수출이나 진출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전면적 중국 협력 증진 방안

중국의 부상으로 일어나는 기회를 이용하고, 또한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청 차원의 전면적 대책의 강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중앙부처나 민간, 학계 등과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성장이 충청남도의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종 투자 협력 개발에 유리한 제도나 시설 여건들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고, 그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혼

련된 인적 구성원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관민학(官民學) 협력 심화

이제까지의 충남지역 중국 교류는 역시 주로 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초기 교류 과정에서 필연적인 추세이지만 향후에는 관·민간·학계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전면적이고 종합적 교류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우선 지금까지 충청남도청이 주도하여 교류해왔던 현황에 대해 이미 앞에서 간략하게 조사해 보았지만, 전체적 시각에서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우연한 계기로 교류가 시작된 것임을 지적하였다.¹³⁾

더구나 충청남도 내에서 인력이나 제반시설이 전면적 교류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초기 미비한 상태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련 공무원의 비전문화, 일과성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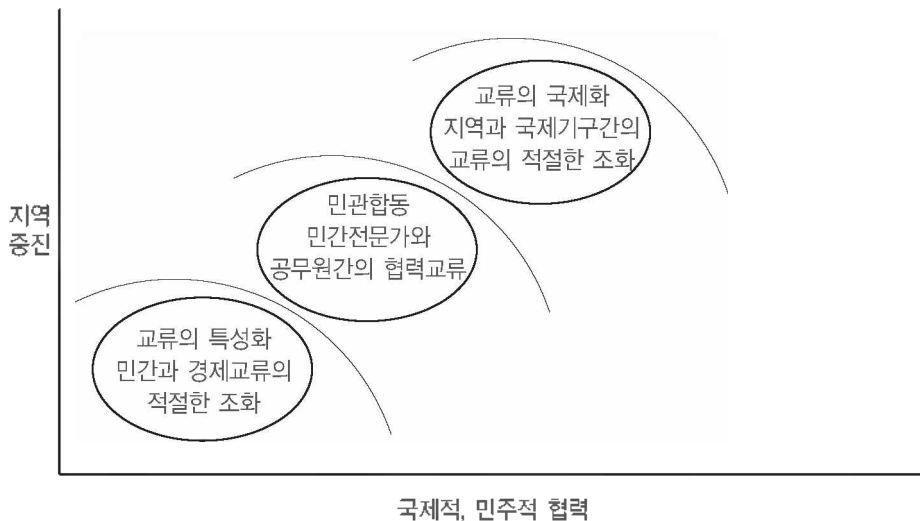
13) 충청남도 자매결연의 문제점으로 계획적 사업추진 결여, 부적절한 결연 및 교류 부진, 교류국가 불균형, 불충분한 결연과정 등을 들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연구』, 2007.5 p.53~55 참조

위주의 교류, 도정 책임자의 관심과 지시에 의존한 협력 진행 등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공무원 채용, 기존 인력의 전문화, 전반적 언어 및 중국관련 지식 교육 및 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 체계적 전략 수립 등이 있을 수 있다.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 관민간의 협조나 민간 기업 및 관련 조직 구성 및 교류 확대를 촉진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이나 인력 지원 등 연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오사카시의 국제교류 핵심요소와 특성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¹⁴⁾

현재 몇 개 대학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창업 보육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충청남도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 장려한다면 관민학 협력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첨부5 : 충청남도 대학 창업 보육 센터 운영 현황)

현재 대전·충남지역에 위치한 각 대학들도 졸업생들의 국내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 그 돌파구로서 중국 취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예를 들어 한남대의 경우 7+4 복수 학위제를 실시하여 중국 현지대학을 졸업한 후 현지에서의 취업을 모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14)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연구』, 2007.5 p.32 참조

있다. 충청남도는 이들 학생들을 심분 활용하여 중국진출의 인적자원으로 모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내륙지역에 거점 확보를 위해 이를 충남지역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고용하거나 지원하여 정보수집, 홍보, 기업 간 교류 증진의 역할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에 분포되어 있는 초·중·고교에 중국어 및 중국학 관련 과목 증설에 필요한 교사 증원 및 교육 강화와 중국 학교와의 교류 증대를 통한 우수한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사회 전반적 중국 문화 배우기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협력 분야 확대

중국과의 전반적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수출입의 통상 분야, 투자분야, 교육 및 의료, 금융, 관광, 물류 등 서비스업 분야에 걸쳐 전면적이고 유기적 협력 확대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표 9〉 중·미 경제전략대화서 합의된 내용¹⁵⁾

부 문	내 용	
금융서비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 하반기 외국증권사 신규영업허용(영업활동범위도 확대) - 외국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물량 100억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 - 외국 은행들에 자사 브랜드로 위안화 표시 신용카드 발행 허용 - 다음 경제전략대화 전까지 보험사들의 기업연금 영업규정 간소화
항공·여행 산업	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까지 민간항공기 직항편수 현재 하루 10회에서 23회로 증편 - 2011년까지 양국 화물기 운항 횟수·편수 관련 모든 규제 해제 - 2010년 항공 완전자유화 일정 협상 시작 - 중국인들의 미국 단체관광 촉진을 위한 협상의향서 서명
에너지·환경	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화탄소 집적·저장기술 상업화 노력 - 친환경 석탄기술의 상업화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 시행 - 환경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줄이거나 제거

15) 중앙일보, 2007. 5. 25.

왜냐하면, 중국은 현재까지 30년간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입 관련 통상 분야의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려왔다면 이제는 해외 투자, 친환경산업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관광, 물류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국제간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최된 중·미간 경제 전략대화에서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충청지역도 지금부터 이러한 서비스업 분야나 투자 유치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려야 할 때가 왔다. 특히, 중국 중서부 지역의 내륙지역과 동부지역에 전개될 건설, 철강, 전기, 가스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 투자에 중국 내 유력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청남도 대중국 교류지역을 살펴보면 이미 지적했듯이 경제가 발달한 동쪽 해안 변에 위치해 있는 대도시와의 전면적 심층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중국이 향후 주력으로 발전하려는 중·서부 내륙지역과의 교류를 염두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오늘날 중국이 계획하고 서부 대개발 전략과 인프라의 계획을 살펴보면 대단히 야심적이다.(첨부6 : 서부 대개발 인프라의 급속한 확충 및 주요사업)

3) 항만 및 물류설비 증강

중국과의 교류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남지역에 물류시설 확충이 필수적인데 충남지역 항만시설은 접안능력이 빈약하고 컨테이너 처리시설이 없어 무역항으로써의 제반 시설이 열악하다.

〈표 10〉 서부 대개발 정책의 시기별 추진 목표

시기별	추진 목표
개발 초기 (2000-2005년)	개발계획 및 정책수립, 주요기구 수립, 홍보, 기초건설 가속화
대규모 개발 (2006-2015년)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투자규모 확대
전면 발전 (2016-2050년)	서부 지역의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 제고

자료 : 임천식,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의 추진현황과 시사점』, 산업경제 분석, 2006.

현재 평택 당진항의 경우 주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충남지역의 물동량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로 산업지역과의 연결 교통망이 구비되어야 하고 물동량을 처리 할 수 있는 항만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충남지역 장래 화물 물동량은 2006년에 1억 2,390만 톤에서 2021년에 2억 2,972만 톤으로 4.2% 연평균 증가율이 전망되며 지역 내 물동량보다 지역 간 물동량이 1.2배 더 많아 지역 간 교통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충남지역

항만 물동량은 2005년 대비 2006년에는 29.1%, 2011년에는 74.4%의 증가가 예상되어 항만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첨부7 : 충남지역 장래 화물물동량 전망)

다음은 충청남도 종합계획으로 살펴본 충남 지역의 항만 계획과 물동량 전망이다.¹⁶⁾

위 자료를 살펴보면 평택·당진항과 보령항의 경우 선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평택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표 11〉 충청남도 무역항 개발계획(2004)

항명		추진 목표	현황	하역능력 (천톤/년)
무역항	소계	81선석	29선석	39,993
	평택·당진항	5만톤급 등 41선석	5만톤급 등 6선석	16,869
	대산항	25만톤급 등 25선석	25만톤급 등 17선석	5,040
	보령항	13만톤급 등 11선석	13만톤급 등 2선석	10,672
	장항항	1만톤급 2선석	1만톤급 2선석	1,626
	태안항	15만톤급 2선석	15만톤급 2선석	5,780
연안항	대전항	물양장 : 1,180m 방파제 : 1,220m 여객터미널 1동	접안시설 : 1,180m 방파제 : 1,220m 호안 : 1,085m	
	비인항	물양장 : 411 방파제 : 635 호안 : 755	접안시설 : 279m 방파제 : 410m 호안 : 691m	

16)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007.

〈표 12〉 충남지역 항만물동량 전망

구분 항명	2005년 처리실적(A)	2006년		2011년	
		물동량(B)	비율(B/A)	물동량(C)	비율(C/A)
계	106,798	137,910	129.1	186,232	174.4
보령항	8,650	8,426	97.4	11,094	128.2
평택·당진항	43,133	67,345	156.1	105,226	244.0
대산항	44,720	53,033	118.6	58,168	130.1
장항항	1,414	1,150	81.3	1,271	89.9
태안항	8,881	7,956	89.6	10,473	117.9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용역, 2004.

장항항을 대중국 산업교역의 중심항으로 육성하여 이들 무역항을 중심으로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의 연계 수송망 구축 및 컨테이너기지, 종합 물류 단지 건설이 요망되고 있고, 이를 위해 계획된 항만 확장 시설 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항구와 연계될 고속도로건설과 그 도로가 타 지역 고속도로나 철도와의 연결은 충청지역 교역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21세기 중국의 세기를 맞이하여 부상하는 중국에서 우리 한국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중국과 인접해 있는 충청남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잘 대처하는 나하는 문제는 새로운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세계 유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세계화의 추세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동시에 세계화에 따른 지역 간 경제의 등장과 그 지역 간의 자유무역체제 성립이 전반적 변화의 주류가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변화의 주체가 되는 분권화의 추세 역시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그 속에 개인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새롭게 정의 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 경쟁을 통해 개인의 행복 실현이 가능한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의 모든 구성이 그들의 발전과 행복 실현을 위해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실현하는 일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적 과업이라 하겠다. 이의 실현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전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영어와 중국어의 실력을 증강시키고 세계의 변화와 중국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부단히 자신들을 그 상황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과거 충청남도와 중국 지역의 협력은 주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중국 지역으로의 사업 이전이나 그를 이용한 수출에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고가의 물품 판매를 시도해 보아야 하며, 이미 발달한 중국 대도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향후 중국의 내륙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중국 자본의 투자 자본 유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전문가의 공무원 채용 등 과감한 행정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 지역 내 무역관 설립의 대폭적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부문과 학계는 정책당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과학 기술 분야 진

출에 매진해야 하고 학술 및 문화 교류에 노력해야 한다.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논의될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미국 등 타국으로 진출, 수출 상품 협력 제조 등도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과거 반세기 동안 우리는 미국, 일본 중심의 해양 세력에 의존하여 성장 발전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해양과 대륙을 넘나들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한중간 협력이 주로 관 중심의 인적 교류와 수출입 교역에 치중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교류 범위가 투자 유치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어야 하고, 그 지역도 발달한 연안지역 및 내륙지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중국 연구도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제정된 물권법에 대한 연구 등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신속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민·학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첨 부 자 료

[첨부 1]

2006년 제조업체 현황
- 규모, 업종별 -

(단위 : 업체수/ 종업원수)

업종 구분	합계	음식 료품	섬유 가죽	목재 가구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코크 석유 화학	플라 스틱 비금속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운송장비	재생 가공 원료
총 계	5,959	1,155	453	241	221	417	1,113	1,323	485	458	90
	171,265	19,104	7,547	3,236	5,477	13,254	24,084	53,897	38,424	25,297	945
대 기 업	소계	157	3		2	6	5	18	13	10	
		51,325	1,520		666	3,957	5,338	9,812	22,381	7,651	
	300인 이 상	55	3		2	5	5	18	13	9	
		51,323	1,520		666	3,956	5,338	9,812	22,381	7,650	
건설중	2										
	2										
중 기 업	소계	588	73	30	14	20	49	79	121	97	105
		62,624	7,737	3,066	1,491	2,650	5,215	7,486	11,719	10,610	12,650
	101~ 299인	229	29	11	5	12	16	23	46	35	52
		38,233	4,539	1,762	857	2,110	2,826	3,605	7,448	6,236	8,855
50~ 100인	341	42	19	9	8	32	56	63	61	51	
	24,368	3,196	1,304	634	540	2,388	3,881	4,259	4,373	3,793	
건설중	18	2			1		12	1	2		
	18	2			1		12	1	2		
소 기 업	소 계	5,311	1,079	423	227	199	362	1,029	1,184	375	343
		57,316	9,847	4,481	1,745	2,161	4,082	11,260	12,366	5,433	4,996
	5~ 49인	3,343	626	260	112	126	265	669	716	271	235
		52,623	8,665	4,020	1,456	1,972	3,846	10,389	11,404	5,218	4,816
3~4인	1,370	350	139	90	57	72	285	260	64	38	
	4,095	1,079	437	266	173	211	846	754	175	110	
건설중	598	103	24	23	16	25	75	208	40	70	
	598	103	24	23	16	25	75	208	40	70	

[첨부 2]

10대 대중국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 계	61,915	24.4	32,546	11.8
1	반도체	7,114	117.0	3,663	6.9
2	석유제품	3,254	23.0	2,211	65.9
3	컴퓨터	5,072	-5.1	2,178	-6.9
4	무선통신기기	3,708	5.8	1,865	4.3
5	합성수지	3,670	19.8	1,863	1.3
6	자동차부품	2,693	55.1	1,468	22.0
7	석유화학합성원료	2,470	36.3	1,396	12.0
8	광학기기	3,820	113.3	1,374	-9.4
9	철강판	3,413	11.0	1,341	-28.7
1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96	90.1	936	275.5

주 : 품목은 MTI 3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첨부 3]

10대 대중국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 계	38,648	30.6	22,384	18.9
1	컴퓨터	3,324	42.1	2,065	28.5
2	반도체	1,902	36.7	1,336	57.2
3	의류	2,188	4.5	1,181	38.6
4	철강판	1,982	106.3	1,038	-20.8
5	전자응용기기	1,450	35.2	724	25.3
6	석탄	1,529	-1.8	659	-17.2
7	알루미늄	1,097	17.1	630	9.4
8	무선통신기기	826	47.7	615	93.2
9	정밀화학원료	1,012	35.3	560	14.9
10	선재봉강 및 철근	824	52.2	527	8.9

주 : 품목은 MTI 3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첨부 4]

무역관 현황

개소	1999. 12. 28
근무인원	파견공무원 1명 (관장), 상담원(현지인) 3명
주소	中國 上海市 安西 2299號 世 成 11 A관
상품전시	30개 업체 입주(상품전시)
전화	+86-21-3228-3384(3299)
Fax	+86-21-5081-6726
E-mail	han9635@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zhongnansh.com

무역관 지원활동 내용

■ 수출지원

연도별	수출상담		수출계약		비 고
	업체수	상담액(천불)	업체수	계약액(천불)	
합계	111	109,439	88	46,851	
2000	13	3,179	9	1,006	
2001	18	5,438	12	2,764	전년대비 2.7배 증가
2002	20	21,238	16	8,605	전년대비 3.1배 증가
2003	17	20,019	13	8,932	'03년 수출목표 780만불의 114.5%달성
2004	22	34,025	17	11,065	'04년 수출목표 1,000만불의 110%달성
2005	21	25,540	21	14,479	'05년 수출목표 1,300만불의 114.4%달성

무역관 지원활동 내용

■ 통상지원 활동

연도별	정보제공(건수)	외국어지원 (건수)	무역실무지원 (건수)	박람회참가 (회수)
합계	1,633	1,150	996	31
2000	183	95	134	6
2001	277	123	126	4
2002	304	213	223	2
2003	295	217	133	5
2004	311	220	173	8
2005	263	282	207	6

[첨부 5]

충청남도 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주관기관 (대학)	사업분야	보육 실수	보육 업체수	지정 년도	비 고
합계	18개 기관 20개 센터	370	332		1개업체가 2개 보육실수 사용하는 업체도 있음
호서대	신기술	70	44	'95	TBI(신기술창업보육센터)
	인터넷	25	18	'99	IBI(인터넷창업보육센터)
순천향대	정보·의료	12	12	'98	BI(창업보육센터)
	인터넷	20	6	'99	IBI(인터넷창업보육센터)
충남 TP	천안밸리	가변적	43	'02	TBI(신기술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기술	35	14	'99	“
홍익대	벤처기업	22	19	'99	BI(창업보육센터)
공주대	벤처기업	10	20	'99	“
선문대	벤처기업	20	14	'99	“
한국기술교육대	벤처기업	17	15	'99	“
홍성기능대	벤처기업	16	15	'99	“
건양대	식·음료	17	13	'00	“
단국대	생명공학	17	13	'00	“
증부대	인삼·생약	17	13	'00	“
천안공대	청정기술	11	11	'00	“
남서울대	디지털미디어	13	12	'00	“
천안대학교	영상멀티미디어	15	16	'00	“
한서대	항공분야	14	14	'01	“
아주자동차대	자동차부품	7	15	'0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계 및 장비	12	8	'00	“

[첨부 6]

인프라의 급속한 확충

프로젝트	내 용	성과 및 추가 계획	완공 시기
서기동수 (西氣東輸)	서부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수송	신장에서 상하이까지 4,212km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	2004년 8월 완공
서전동송 (西電東送)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이 부족한 동부에 전송	지난해 말까지 송전 설비 총 용량 800만kw, 송전선로 1만3,300km 완성해 2,060만kw의 송전 능력 확보	2009년 발전용량 1,820만kw의 산샤댐 완공 예정
남수북조 (南水北調)	창장(長江·양자강) 물을 황허(黃河)로 끌어들이며 베이징 텐진 등으로 공급	동선-창장 하류에서 베이징까지 1,150km 중선-창장에서 화북평원까지 1,240km 서선-구체적 노선 검토 단계	2050년 완공 목표
퇴경환림 (退耕還林)	경사 25도 이상의 경작지를 산림으로 되돌리기	지난해 말까지 황무지 3억4,000만평과 경작지 2억3,600만 평을 산림으로 조성	시한 없음
퇴목환초 (退牧還草)	목축 증가로 황폐화된 목초지를 되살리기	지난해 말까지 초원 3억8,000만 평 조성	시한 없음
오종칠횡 (五縱七橫) 팔종팔횡 (八縱八橫)	서부 동 중국 전역을 격자형으로 교통망 건설	도로 고속도 3만6,000km 등 도로 35만km 신설 철도 청장철로 연장구간(972km)를 포함해 3만4,000km 신설	2010년 완공 목표 2010년 완공 목표

자료 : 하중대, 『서부 대개발 현장보고』, 동아일보, 2005.8.25.

서부 대개발 주요 사업

추진 사업명	주요 내용
1. 시안(西安)-난징(南京)철도, 시안(西安)-허페이(合肥)구간 건설 사업	시안-난양-난징으로 이어지는 철도 착공. 2005년에 먼저 232억 위안을 투입, 시안-허페이 구간 995km철도 건설
2. 충칭(重慶)-화이하(懷化) 철도	충칭-화이하 간의 철도 650km 구간 건설을 위해 182억 위안 투자
3. 서부 간선도로 건설사업	국가 주요간선도로 및 빈곤지역과 연결되는 도로 약 1,700km 건설
4. 공항 건설사업	시안(西安) 셴양(咸陽)국제공항, 청두(成都) 커우류우(口流), 난저우(蘭州), 중촨(中川)공항 등
5. 충칭(重慶) 고가철도 건설 1기 공정사업	충칭시의 교통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충칭에 33억 위안을 투자. 13.5km 길이에 총 14개 역을 경유하는 고가철도 건설
6. 차이다무(柴達木) 분지 수송관 건설공사	차이다무-시닝-난저우에 이르는 연간 수송 규모 20억m ³ 의 가스수송관 건설(총연장 953km)
7. 발전설비 및 홍수방지용 수리시설 공사	- 쓰촨(四川)의 자평포(紫坪鋪)프로젝트: 도강언과(都江堰) 청두(成都)의 물공급량을 500m ³ 늘리고 매년 34억kW의 전력을 발전하기 위하여 건설 - 닝샤 회족자치구의 수리시설 건설: 13억 위안을 투자, 7만 7,000ha의 토지를 관개, 지역의 홍수방지능력을 높이고 연간 7억kW의 전력을 생산
8. 생태계조성 사업 및 황무지 개간 조림사업	13개성에 걸쳐 경작지로 이용되던 34만ha의 토지를 녹화하고, 43만ha의 황무지에 인공조림 또는 초원 조성
9. 칼륨비료공사	창하이성 옌후(鹽湖)지역의 칼륨비료 생산에 투자, 농업생산성과 경제 발전 추진
10. 서부지역 고등교육 기초 시설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 서부지역 고등교육기관 지원

자료 : 중국 국무원 서부지구개발 영도 소조판공실, 2005.
원천식,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의 추진현황과 시사점」, 산업경제 분석, 2006.

[첨부 7]

충남지역 장래 화물물동량 전망

구 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물동량(톤)		56,134,319	70,832,579	85,690,994	103,627,791	4.17
지역간 물동량(톤)	발생	40,606,164	51,075,164	61,827,345	74,811,129	4.16
	도착	27,162,749	34,574,607	42,062,234	51,277,235	4.33
합 계		123,903,232	156,482,350	189,580,573	229,716,155	4.20

자료: 국가 교통DB센터, 장래통행량 예측자료, 2005(<http://www.ktdb.go.kr>)

참 고 자 료

潘維, 『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理論與實踐』, 北京: 經濟出版社, 2006.

원천식,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의 추진현황과 시사점』, 산업경제 분석, 2006.

이봉걸, 『2006년 지방자치단체별 대중국 교역 현황과 특징』, 중국경제기초정보시리즈, 2006.

21世紀經濟報道, 『中國世紀』, 華夏出版社, 2004.

최원기, 『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미래전략 연구원 특별기고, 2006.

충청남도, 『2006년 도정백서』, 2006.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007.

성태규,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연구』, 2007.

중앙일보, 2007. 5. 19.

중앙일보, 2007. 5. 25.

국정브리핑, 2007. 4. 23. <http://www.news.naver.com>.

<http://www.chosun.com> 2005. 12. 15.

楊帆, 『透析中國經濟走勢』, 世紀大講堂, 2007. 5. 19 <http://www.phoenixtv.com>

陳慶修, 『中國入世 5周年備忘』, 中國報道, 2007. 第1期 <http://www.qikan.com>